

광주·전남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 확보 '비상'

코로나19 지역감염 연일 발생
지역 내 가용 병상 5개 뿐
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가용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환자 중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많은 점이 큰 부담이다.

〈관련기사 2·5·6면〉

광주시는 중환자 치료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국가 지정치료병상을 갖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병원 내 병상조정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2~3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관련 중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치료병상(상)은 전남대병원 7병상, 조선대병원 10병상, 화순전남대병원 4병상 등 총 21병상이다. 인근 전북으로 확대해도 전북대병원 10병상, 원광대 병원 3병상 등 13병상이 추가된다. 중환자는 산소치료를 받는 중증환자와 기계 호흡을 하는 위중환자를 통칭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환자 치료병상을 공용하고 있는데, 이미 전남대병원은 7병상(광주 1명, 전남 6명)이 가득 차 가용병상 '0개'이며, 조선대병원도 10병상 중 8병상(광주 3명, 전남 5명)에서 중증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도 4병상 중 북구 성립침례교회 전파자인 광주 284명이 입원하면서 3병상만 여유가 있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전체 21병상 중 5병상 뿐이다.

위기 상황 발생시 호남권인 전북 내 국

가지 지정치료병상을 우선 활용할 수 있지만, 수도권 중환자 급증과 전북 내 확진자 추가 발생 등에 따라 전북도 조만간 가용병상 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일단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환자들을 선별해 전남병원으로 이송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증상이 약한 환자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19 특성상 갑자기 중증환자로 악화하는 사례도 많아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광화문 집회 확진자 관련 추가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증환자 급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선데 뒀 친척으로 의료계 파업 사태로 현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코로나19 관련 검사부터 치료까지 의대 교수들이 전담하는 등의 의료인력 수급마저 비상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의료진의 피로 누적에 따른 중환자 치료관리 등도 공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에선 이날 신규 확진자가 5명 발생했다. 광주는 북구 오치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지역 37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감염경로는 동광주 탁구클럽이다. 북구 양산동에 사는 10대는 광주 373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았으며, 광화문 집회 참가 관련자다. 광주 374번째 확진자는 광산구 운남동에 주소를 둔 50대 여성으로 성북구 확진자와 접촉했다. 전남에선 이날 2명이 늘었다. 화순에서 80대 여성(전남 144번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경기 펜션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전남 49번째와 접촉했다. 광양에선 60대 여성(전남 145번째)이 서울에서 가족을 만나고 왔던 전남 5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일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확진자가 나왔던 순천에서는 1주일 만에 추가 감염자가 없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방역 성공이 민생경제 살리는 길”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코로나 사태 이변주 안정 기대
재난지원금 제한 지급 효과적
한전공대 예정대로 개교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변 주부터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목사와 광복절 집회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확산됐다”며 “그 사람들 안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각종 진단 및 방역 비용은 물론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뷰 전문 3면〉

이날 인터뷰에서 정 총리는 고의로 동선을 감추거나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속상한 걸로 치면 아무 말할 수가 없지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과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일단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넓게 하는 것 보다 낫다”며 “전국민 지급보다는 제한적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다 빚내서 하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쌀 독에 쌀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결국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부동산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방역이 곧 경제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빚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크게 투기 수요를 억누르고 공급을 늘려 균형을 잡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뉴딜에 농업 부문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청와대 발표 당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한 바 있다”며 “한국

형 뉴딜은 진행형이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인 흑산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방사광 가속기 추가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미래에 수요가 있으면 그때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한전공대 개교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개교 일자는 정해진 것 아니냐. 그대로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광

주 경제자유구역 내에 증정특화산업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광주는 낙후지역이 아니어서 법인세 감면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 이슈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글에 대해 “일부 읽어봤다.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고쳐 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코로나 확진자 3명 중 1명 '60대 이상'

46명 ... 사망자는 없어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치료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코

로나 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모두 144명이다. 사망자는 다행히 없지만, 감염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확진자의 31.95%를 차지한다. 확진자도 60~69세가 29명(20.14%)으로 가장 많다. 70~79세 11명(7.64%), 80세

이상도 6명(4.17%)이나 된다. 50~59세는 22명(15.28%), 40~49세 18명(12.5%), 30~39세 28명(19.44%), 20~29세 17명(11.81%), 10~19세 6명(4.17%), 0~9세 7명(4.86%)이다.

도내 확진자들이 고연령대에 몰리면서 의료당국은 이들의 치료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노인 상당수가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 19가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도내 확진자 144명 중 91명이 감염병 전담병원인 순천의료원에 70명, 강진의료원에 21명이 격리돼 치료 중이다. 환자 11명은 광주 전남대병원(9명)과 화순전남대병원(2명)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우울·답답·불안 ... '코로나 블루' ▶6면
- 굿모닝 예향 - 뉴트로 열풍 ▶18·19면
- 광주FC, 한여름밤의 '골 소나기' ▶22면

NEW

2weeks
고령화 고도화 예방(나이) 늦추기
피부 주름 등을 단 2주 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9세 성인 여성(대상) 2019.09.16~10.17 4주간(피부) 임상실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